

## 복고주의(復古主義)의 두 얼굴(2)

### Restoration with Two Faces(2)

박영호 / 의전 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Ho

#### 4. 복고주의 양면성, 숨은 의미 찾기

정치, 사회 제도나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복고 행위에는 몇가지 다른 유형이 감지된다. 첫째는 직사(直寫) 행위로서, 수사법상 직유(直喩)와 같은 것이다. 예컨대, 어떤 업적을 남긴 이의 동상을 세우거나, 가르침을 선양하여 본받게 하는 행위 등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다. 목표가 분명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직선적이어서, 읽는 이가 현장에서 곧바로 의미를 파악케 한다. 숙명적 대결의 영원한 맞수니, 우리의 적은 누구니 하는 구호가 그러하듯, 의문스러움 없이, 눈 앞에서 단번에 복고 대상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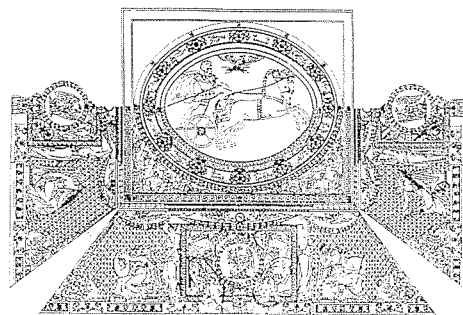
반면, 창조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거나, 의미 변화가 있는 복고 행위다. 과거를 현재 시점에 맞추어 재생하는 데는 변모를 위한 새로움이 추가 되는데, 때로는 이 추가되는 새로움 속에 과거의 것이 지니고 있지 않던 다른 의미가 숨어들어, 중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위 은유적(隱喩的)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기술한 드리나강의 다리는 강의 양안을 연결하는 나룻배로서의 주민 편의시설 의미보다는, 지배자의 통치를 원활케 하는 동서 교통로로서, 오스만의 실력을 세르비아에 과시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읽은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건축물의 경우에

다음에 소개하는 그림은 어떤 실내의 천정화의 일부분이다. 그 속에 그려진 내용을 살펴 보면서 나름대로 숨은 의미를 음미해 보자.

1. 복고주의 개관
2. 복고주의에 대한 일반 관념
3. 복고주의 유형
4. 복고주의 양면성, 숨은 의미 찾기
5. 역사상의 복고주의
6. 복고주의 반성과 진로



Percier and Fontaine, ceiling of the guardroom at the Tuileries (from Recueil)

중심부 타원형 속에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무장 군인의 모습이 보이며, 그 위로 새가 먹이를 낚아 채어 난다. 주변 경사 천정으로 보이는 곳에는 독수리로 보이는 맹금류가 중앙을 호위하듯 3면에 둘러 있으며, 사이 사이에 날개를 접은 여인들의 창을 든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상무적 개선(凱旋) 분위가 뚜렷하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나타낸 그림인가.

영화 '번하'의 전차 경주 장면을 떠올린다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를 연상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전사의 투구 모습이며, 날개를 반쯤 벌리고 날카로운 부리를 옆으로 한 독수리며(독수리는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의 상징이며, 전쟁의 신 아레스의 상징이다),<sup>17)</sup> 앞가슴을 드러낸 채, 창과 방패를 든, 날개 접은 여인의 모습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와 아데네 여신의 합성 이미지를 읽는다. 여러 면에서 강한 군사력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인은 전쟁에 나가기 전,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전운을 점쳐, 출정을 결정했다 한다.<sup>18)</sup> 먹이를 낚아 채 맹금류의 비상은 이미 승전을 예고하고 있으니, 전사여 그냥 그대로 진군하라는 독전(督戰)의 의미로 읽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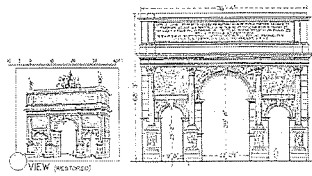
앞의 그림은 페르시에(Percier)와 폰텐느(Fontaine)에 의한 불란서 근위대의 실내 장식이다.<sup>19)</sup> 위의 두 사람은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고전적 건축양식인 암피르식(Ampire Style)의 기초를 세웠다 한다. 황제의 주석 건축가이며, 그 유명한 국립 미술학교 애콜드 보자르를 창립한 사람들<sup>20)</sup>이라는 이력을 본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폴레옹의 그 어떤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류의 실내장식을 가능케 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실내 장식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생각으로 보여진다. 여러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나폴레옹이 로마에 이상을 두었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로마의 세계 지배 이상과 그의 생애가 주변국과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엮어 있음을 두고 볼 때, 그런 심증을 갖게 된다.<sup>20-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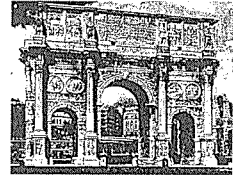
나폴레옹이 많은 전쟁을 수행한 것과 로마의 정복 전쟁은 별개여서, 우연한 연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건축 행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독 로마를 지목했느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 두차례 전쟁은 시대 여건상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어야 할 이유로, 로마가 좋아서라는 대답은 적절치 않다. 로마의 건물도, 제도도, 법률도 아닌, 세계 지배의 야망이라는 대답이야말로 전쟁 수행

의 이유로 걸맞아 보인다. 그 만큼 중대한 이유라면 복고, 또한 심각한 깊이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sup>20-2)</sup>



셉티무스 세베루스 개선문(A.D203)



콘스탄틴 개선문(A.D312)



카루셀 개선문(1806):  
(무로드벤트, Neo-classicism)

그래서 인지 전쟁과 관련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이 설계한 카루셀 개선문(Arc of Carrusel,<sup>21)</sup> 1806)은 로마 제국의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황제의 개선문을 본떠서 세운 것이다 한다.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 가져온 지붕 위의 청동제 군마 전리품과 주두 위에 조각상을 얹힌 4개의 기둥과 3개의 아취 및 부조, 지붕 끝 장식 등 어디 하나 닳지 않은 데가 없다.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로서 방돔 광장(Place Vendome)에 있는 프랑스군 기념주(Colonne de La Grand Armee)를 들 수 있다. 이 또한 로마 제국의 트라얀 황제의 기념주(Trajans' Column)를 모방한 것이다 한다.

사이 사이에 부조가 연속된 나선(螺旋)을 지닌 원형주로서, 전리품으로 노획한 1,200문의 대포를 녹인 철을 소재로 하였다하니, 개선문에 못지 않은 굉장한 전쟁 기념물이다.<sup>22)</sup>

17) 클레트 애스틴 외 1인. 유복렬 역: 그리스 로마 신화(미래 M&B) P. 106-독수리는 제우스를 주인으로 섬긴다. 그의 상징으로 차용된다. 그 용맹성으로 인하여 신화성. 전쟁의 신 아레스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18)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Vol 김석희 역(한길사, '98) p. 49

19) Leonardo Benevolo: History of Architecture. vol. 1(MIT, 1978) p.160

20) 윤장섭: 앞책, p.254

20-1) 조좌호: 세계문화사(박영사, 78)P312.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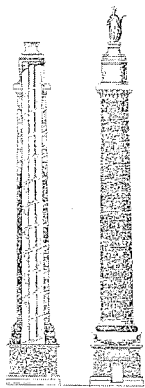
프랑스 국민은 오랫동안 혁명에 지쳐 안정과 질서를 갈망하여 개인적 독재라도 불사하였다. 이런 가운데 집정정부는 사실상 나폴레옹의 독재정치가 하였다. 이 독재 정권은 인민의 열렬한 지지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나폴레옹은 그 인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세 없는 정복이 필요하였다."

20-2) 조좌호: 앞책 p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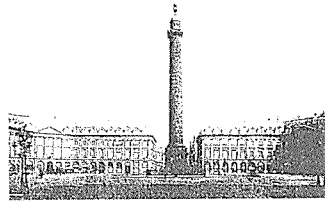
나폴레옹의 전성기에 그는 프랑스 황제 겸 이탈리아 왕인 동시에 라인 동맹 왕소속 대공국의 보호자이었다. 그의 형은 이스파니아 왕에 두동생은 홀랜드 왕과 웨스트팔리아 왕위에 앉았다. 일족 공신을 봉한 나라의 수는 모두 7개국 30공국에 이르렀다.

21) Geoffrey Broadbent: 이건설, 이공철, 현상일 역: Neo-Classicism.(세진사, '95)p65

22) Geoffrey Broadbent: 앞책 p. 65



트라얀 황제의 기념주(로마)



프랑스크 기념주(방돔 광장)

영국의 탁월한 건축 저술가 브로드벤트(Geoffrey Broadbent)에 의하면, 트라얀 기념주의 원래 모습과 같이 최정상부에는 시저와 비슷하게 분장을 한 나폴레옹의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하니, 로마에 대한 그의 동경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 나폴레옹이 태어난 고향 코르시카에는 로마 원로원 복장으로 토가를 두르고, 나폴레옹 법전을 손에 든 그의 동상이 서 있어서<sup>23)</sup> 브로드벤트의 주장이 낭설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흡사 로마 제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며, 귀족 제도의 부활, 황제의 부활과 함께 즐기던 복고 의지에 숨어 있는 아망을 읽을 수 있다. - 복고 유형 두세개가 복합되어 보인다.

### 은유(隱喩)로서의 복고 표현

#### 정치, 종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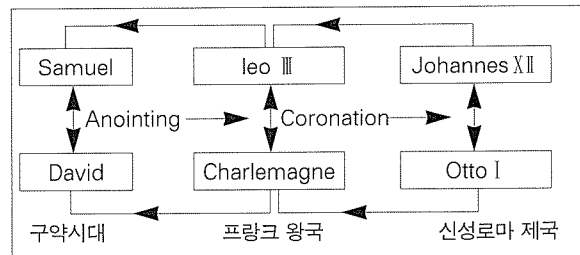
서양사 중세편 머릿글은 대체로 사르르마뉴(Charlemagne 772-814)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로마 법왕 래오 3세는 A.D.800년 성탄절에 로마에서 사르르마뉴에게 황제의 관(冠)을 씌워 주었다.” 라는 내용이다.<sup>24)</sup> 이미 프랑크 왕국(지금의 불란서, 독일의 시조격인 나라)의 4대 왕인 그에게 왕 대신 황제의 호칭이 겹고습으로 변했을 뿐이나, 멸망한 서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주변 그리스도국에 대한 우두머리 역할을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관 행위(戴冠行爲)는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토인비에 의하면, 아주 훗날까지 계속된 이러한 의식은, 그 이전의 헬네릭 사회에서는 없던 것으로서, 구약시대(舊約時代) 이스라엘의 종교 관습에서 유래한 의식의 부활이라 한다.<sup>25)</sup> 27) 선지자(先知者) 사무엘에 의한, 다윗의 성별(聖別; Samuel anointing David)이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한 솔로몬 왕 추대 의식 -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제사장 사독이 성막(聖幕) 가운데서 기

름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洋角)을 붙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sup>26)</sup> - 에서 대관 의식의 원형으로 살피고 있다. 그 의식 속에는 주변국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쇠잔한 교황의 권위가 부활되는 내용 줄거리가 암시적으로 깔려 있음을 보게된다.

게르만 민족 이동시, 그 지역(갈리아)에 거주하던 일부 원주민이 없던 것이 아니었으나, 이 이후 거주한 게르만에게는 잃어버린 영토도, 권위도, 영광도 없던 터라, 복고의 의미는 교황과 라틴 문화 전반에 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교 지도자의 군주에 대한 승인과 복고 관계

### 일본에 있어서의 신도(神道)의 부활

전쟁과 같은 큰 혼란에 앞서 강한 복고 바람이 불었던 것은 여러곳에서 살펴진다. 앞서 본 예들이 그러하듯, 대전 전 일본 사회상에 나타난 복고주의 경향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지적한다. 그것은 군국주의(軍國主義)와 신도(神道)의 부활로 살펴진다. 전국시대 이후, 개화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잃고 입지를 펴지 못하던, 봉건적 종신(從臣) 사무라이들이 과두 정치의 일원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며 야기된 현상이라 한다.<sup>28)</sup>

군국적 분위기가 부활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간 신성시 되어온 천황의 권위를 빌어 의지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하에서는 명분도 서며, 손쉽게 먹혀 들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유명무실하던 천황이 새삼 전면에 등장하면서,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로서 신도가 부활하게 된다. 신도는 원래 순박했던 일본의 고유 종교라 한다. 이들 군국주의 자들에 대한 천황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지며, 그 신전인 신사(神社)가 그 사상을 고양시키는 대중적 장소로 바뀌어 나간다. 말이 대중적이지, 얼

23) K.B.S. 1. PM6:00. 세상은 넓다. 건축기행 중 콜시카 편에서.

24) 조희호, 세계문화사, (박영사 78)p.136

25) 토인비: 앞책. vol.2.p.442

26) 성경, 열왕기, 하. 1장 38절 중반에서 39절까지

27) A.J. toynbee: 앞책. vol9.p.21

-There can be no question that its ultimate origin is to be found in the old Testament, where it embodies the theocratic principle and the dependence of the secular power on the spiritual power of the prophet., as we see in the case of Samuel anointing David in place of S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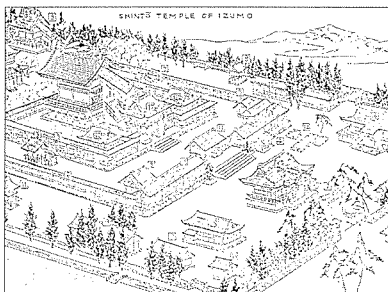
28) C. Brinton: 앞책. vol.3.p.227,228

마나 강압적이었던가는 궁성요배(宮城遙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만세를 강요 당하며,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등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실감하게 된다.

1863년 일본은 신도에서 불교를 분리해 내는, 이른바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을 공포하여 고대 이래의 신불습합(神佛習合, 일본 고래의 신과 불교를 절충한 신앙 형식)을 금지하고 신도를 국교로 하는 방침을 밝힌다. 그 7년 후, 대교선포(大敎宣布)의 조칙을 내려 국민에게 천황의 조상신과 천황을 숭배하는 포교정책을 밝히기에 이른다<sup>29)</sup>. 이후, 내각의 모든 책임을 천황에 대하여 지는 소위 메이지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군국주의자들의 숨은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얼마 후, 청일전쟁이 터지고 노일전쟁 및 양차 세계대전에 고루 연루된 것은 이들의 저의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우연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어느 서양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본 대중의 충성심을 성스러운 천황의 사명 에다 귀일(歸一)시켜, 그들로 하여금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군국주의자의 의도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다.”<sup>30)</sup>

신도를 개작, 부활시킨 데 대한 영향과 그 책임을 여기까지 미루어 보는 데는 비약함이 없지 않으나, 작은 원인들의 누적된 결과로써, 또한 오랜 도움달기를 눈여겨 볼 때, 여러 역사가의 평가가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군국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부활, 복고시키기 위하여, 신도를 부활하여 그 속에다 천황을 부각, 부활시키는 이중 삼중으로 위장된 복고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악의적 훼손과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사는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써 알려져 있다. 건축물은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거기에 얽힌 구구한 사연에 구애 받음 없이 건축 조형만으로서의 독자미와 순수미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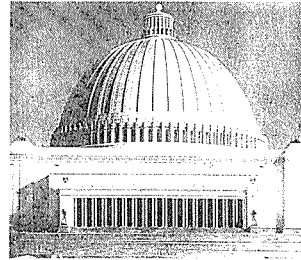
이즈모 신사 조감도.(1874년 재건)<sup>31)</sup>

### 건축에 있어서 은유적 표현

읽어서 부담없이 내용을 빨리 알 수 있는 전술한 직유법에 비하여, 다소 머리를 짜아내어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야 전체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소 난해한 문장이 있다. 이

른바, 원관념(原觀念)은 숨어 있고, 보조 관념이 표면에 나타나는 은유와 같은 수사법이다.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에는 주존불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일반 대웅전에서 좌측면에 있음을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존불이 서방극락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阿彌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면 중앙을 마다하고, 서쪽 측면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원관념으로서의 서방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Great Hall 모형 전경 (브로드벤트, '신교전주의'에서)<sup>33)</sup>

모형으로 보이는 위의 사진을 살펴보면, 복고주의 숨은 의도를 음미해 본다.

건물 지붕 좌, 우측에는 로마의 개선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전차 군마상이 보인다. 또한 돔의 최정상부와 열주의 지붕 좌, 우측에는 날개를 퍼덕이는 독수리 상이 있다. 언급된 부분만 본다면, 앞서의 나폴레옹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돔(Dome)의 형태는 베드로 성당 본체와 흡사하며, 미국 국회 의사당의 모습과는 더욱 유사한 데가 많다. 따라서 신교전주의 양식의 하나로 무심코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앞에 점점이 밝힌 사람들의 깨알 같은 크기나 쌍주가 늘어선 전면 폭과 돔의 규모에서, 그만 입이 딱 벌어지게 된다. 어떤 복고주의의 열망이기에 이토록 굉장한 과장법이 동원되어야 했을까. (모형속의 작은 요소를 가지고 확대 해석함은 지나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하단부 좌, 우측에 있는 아틀라스(Atlas)로 보여지는 조각상을 눈여겨 보자. 그리스, 로마 신화상의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이다. 그래서 머리에 짐을 얹힌 형태로 표현된다. 이 건물을 거인과 대비할 때, 이 거인이 떠 받들고 있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돔이 유난히 크다는 것은 건물내에 대단한 홀(Hall)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홀에 모인 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처럼 높은 분이 전투적 상무정신을 강조한다는 내용이라면 얼추 숨은 의도가 들어나는지. 위의 모형 사진은 히틀러와 그의

29) 박경희: 일본사. (일빛사) p. 384(메이지 유신, 하급무사중심 왕정복고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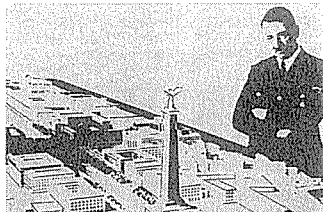
30) C. Brinton: 앞책 vol.3.p. 480

31) C.M. Harris: Historic Architecture Sourcebook(McGraw Hill)p. 310

33) G. Broadbent: 앞책, p. 132

수석 건축가 알버트스피르(Albert Speer)가 설계한 '베를린 신 도시계획'에 나타난, Great Hall 이라고 불리는 계획 건물이다.

베를린 재개발 도시계획 모형을 바라보는 히틀러. 자못 진지한 표정이다. (99년 2. 6. 한겨레 신문에서)  
(제3제국의 '정치건축'에 관한 글이 실린 책 표지, 부분)



이 건물은 가로로 막다른 부분인, 예컨대 세종로의 경복궁과 같은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 핵심적인 위치가 그 규모와 함께 주목받은 것이며, 히틀러의 건축관을 살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개대된다.

건축사 연구가 커티스(William, J.R. Curtis)에 의하면, 건축가를 지망했다 좌절했던 히틀러는 국정 그 자체를 일종의 기념비적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여 빛나는 독일 제국을 입증하기 위한 베를린 도시계획에 열중했다고 한다.<sup>34)</sup> 도시계획 모형 전시대 앞에서 팔장을 낀 채 조용히 들여다 보는 히틀러의 모습은 자못 진지해 보여, 그의 열정을 감지케 한다. 예의 개신문과 기념주가 보이는 것도 그 시절 군국주의 분위기를 더한다.

이 거대한 건물이 세워졌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용에 감탄했겠으며, 오금이 저릴 정도로 주눅이 든 백성들의 인고가 오죽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규모 실제 베드로 성당 전체가 그 돔(Dome)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sup>35)</sup> 베드로 성당의 본체 장축 180m를 감안하면, 앞서의 추축도 무리가 아니다. 그 건립에 손을 댔을 경우, 여기에 소모되는 정력과 국력의 낭비를 감안할 때,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전에 멸망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스, 로마적인 것에 굉장한 과장법이 동원되어 복고를 돕고 있다. 복고란 가깝게는 그 시절의 고통과 굴욕(베르사이유 체제)으로부터 벗어나, 1차 세계대전 전으로의 회복이며, 멀리는 신성로마 제국의 영광된 타이틀을 되찾아, 로마 제국의 지배 야망을 이루는 것이었다.

총통관저 입구. (Albert Speer) (브루드베르트, '신교전주의'에서)



위의 사진은 앞서의 히틀러의 수석 건축가가 설계한 총통 관저의 입구다. 도리아식 기둥과 주두를 더욱 단순

화 시킨 입구 상부에는, 예의 그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가 나치 문장을 안고 서 있다. 앞서의 Great hall의 돔 최정상부에서도 독수리 상을 보았다. 같은 시기, 파리 만국 박람회 독일과 (Albert Speer 설계)의 최정상부에서도 같은 형태의 독수리상이 서 있으니, 국내외, 용도 불문하고 얼마나 빈번히 사용되었나를 짐작케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살피지는 독수리 상은 웅망을 상징하는 사자와 함께 여러 문장(文章)에 즐겨 사용되고 있다. 프랑크 왕국의 시조격인 메로빙거(Merovingians) 조의 유물 장식품에도 등장하여, 그들 만의 역사도 오래되어 보인다. 그러나 나폴레옹 시기나 히틀러의 경우는,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로마적인 것의 복고 행위로 살피움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독수리가 그만큼 로마적이기 때문이다. 로마 건국 시조인 로무루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호의적 역할을 했다는 12마리의 독수리에 얽힌 설화가 이를 말해준다.<sup>37)</sup>

독수리는 그리스 신화상, 신중의 신 제우스의 상징이어서, 로마 황제의 상징물로써, 그 이후의 전제적 지도자가 자신의 상징물로 복고 재생함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진다. 세월이 흐른 후, 황제를 부활한 전제적 군주 아우구스투스 등장하며, 그들 설화 속의 12마리의 독수리를 공식 행사에 재현함으로써, 의식의 복고를 감행한다<sup>38)</sup>. 비잔틴 제국에 이르러, 바실레오스 황제의 요람 일화에서도 살피지며, 동서를 두루 살피라는 의미에서 쌍두 독수리가 문장으로 등장한다<sup>39,40)</sup>.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한 독수리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로마 제국으로의 복고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소소한 복고 행위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겠으며, 별의별 디자인 기법이 사용되었으리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에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이며, 그 영향력이 모세 혈관의 구석구석, 터럭 하나에 까지도 미쳤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집요한 것으로 비쳐진다. 끈질긴 복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 5. 역사상의 복고주의

### 유럽의 복고사

1999년 1월1일 주요 일간지 1면은 "유로시

34) William, J.R. Curtis, 강병근 역; 1900년 이후 근대건축. vol.2.(화영사 '93)p.350  
35)William, J.r. Curtis; 앞책 vol.2.p355  
37) 클레트 애스틴; 앞책, p. 232  
38) 클레트 애스틴; 앞책, p. 226  
39) Philip Sherrard; Great Age of man. Byzantium(Time life book '83) p. 64  
40) Philip Sherrard; 앞책, p. 120

대 개막"이라는 머릿기사로 장식된다. 어떤 조크 기사에는 이런 구절도 보인다.

"유러화 출범! 잊지 마세요, 화폐의 로마제국 탄생을." 41)

그 탄생이란 부활, 재생을 의미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복고 경향이 감지되어 왔음을 전제로 하는 함축 기사다. 이러한 일부 복고 경향의 시원은 프랑크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진다. 앞서 언급한 사르르마뉴 대관식에 대하여 "망해버린 서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 군주에 의해 부활되었다" 라는 역사 견해가 42) 보여주듯이 그 조짐을 1,200년 전으로 거슬러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유러화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유럽 복고사를 대하여, 그 파란곡절에 놀라워 하며, 신문의 "잊지마세요" 라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사르르마뉴는 그의 아버지 피핀(Pippin)이 교황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오늘을 있게 한 교황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영토를 확장하여, 그리스도교의 포교에 매진한다. 얻은 땅의 일부는 교황에게 기증하여 그의 아버지가 마련한 교황령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는 부친의 대를 잇는 소박한 마음에서 작은 복고로 접어들 수도 있었으나, 후일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영토 확장의 결실과 라틴 문화 부흥 노력, 가톨릭 교세 확장 노력, 교육에 대한 열정 - 각지에 수도원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을 썼다함. 오늘날 근대 교육의 기초를 세운 것이 그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힌다. - 등을 살펴볼 때, 카롤링가 르네상스(Carolingians Renaissance) 라는 역사적 부름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 프랑크 왕국이 불란서와 독일로 나뉘어진 이후에는, 이를 본받으려는 복고행위는 양국 간에 경쟁적으로 나타나 훗날의 비극을 예고하기도 한다. 히틀러는 사르르마뉴의 즉위 보물(即位寶物)인, 왕관, 홀(笏) 등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합스부르크가의 박물관에서 훔쳐 그의 산장에 보관하고는 흠모했다 한다. 망령(亡靈)의 망령에 대한 경배라는 쓴 비평이 더해진다.

독일의 오토 1세(Otto 1,936-973)는 사르르마뉴가 했던 그대로 영토 확장, 이교도에 대한 가톨릭 개종, 교황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A.D.962년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며, 이로써 신성로마 제국(Holy Roman Empire)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폐망한 로마 제국이 두 번씩이나 거듭 태어난, 라틴 문화에 대한 감동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그 감동의 깊이만큼 복고주의의 끈

질김도 와 닿는다.

앞서의 영걸들이 그랬던 바와 같이, 그러한 본받을 복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과 교황에 대한 지원 및 이탈리아에 대한 경영 등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나라 밖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의 역사가 계속되며, 나폴레옹에서 히틀러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유럽 전쟁의 원인을 간추려 보게되는 암시로 작용함을 알게된다.

### 보스니아로부터 얻는 교훈

오스만 지배하의 보스니아에는 세르비아계,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등 비록 민족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한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어딘지 가라앉아 보이는, 그래서 걸으려는 잔잔한 평화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보여준다.

이튿날 먼동이 트자 터키인과 세르비아인들은 일터로 나가서 서로 무뚝뚝하게 표정없는 얼굴을 맞대어 인사를 나눈다. 흘러간 옛날로부터 이 읍내에서 주고 받은 인사, 마치 가짜이면서도 쉽사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위조 동전과도 같은 흔해빠진 시골<sup>43)</sup> 인사말을 교환하였다. 세르비아계는 피지배자로서 대부분 이슬람 지주의 소작인이었으나, 생활의 꺾고러움을 그저 속으로 삭이며 큰 충동을 면해가는, 그런 잔잔함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보스니아는 집단적 정체성이 부족했다던가, 성당이나 모스크에 가지 않는 기독교인, 이슬람인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의 신앙 생활이며, 상호 결혼도 흔하였다는 사무엘 헌팅톤의 지적은 앞서의 배경 분위기를 뒷받침해 준다.<sup>44)</sup>

여기에서 민족과 종교, 언어, 관습의 차이가 분쟁의 필요 충분한 직접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 코소보전쟁에 이어지는 결과를 두고 몇몇 전문가의 같은 견해가 있었다. 그렇게 자제하면서 모면해가는 중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이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그것은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게 되는 복고성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며, 이를 부추기는 민족주의 경향의 지도자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보스니아 내전을 통하여 세르비아계 지도자 밀로세비치와 이슬람계 지도자 이제트베고비치라는 두 상반된 복고 성향의 대결로 나타나 보인다. 유교가

41) 조선일보: 99. 팔면봉

42) 조좌호: 앞책,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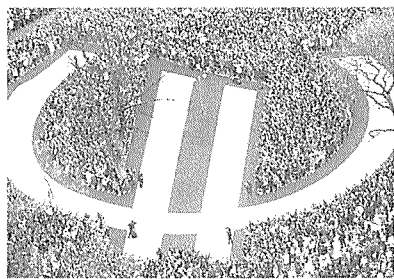
43) 이보안드리치: 앞책 p. 99

44) 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 이회재 역(김영사) p. 367

해체되며 폭발적 인구 증가를 보인 이슬람계의 지원을 입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는 몇 세기를 거슬러 오스만 지배하의 이슬람 사회로의 복고를 감행한다

“언론에는 이슬람 민족주의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이슬람 종교 수업이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교과서는 오스만 통치시 이슬람의 혜택을 강조하였다.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와 구별되는 보스니아어가 장려되었다. 터키어와 아랍어 등 이슬람에서 들어온 단어들도 보스니아어로 통합되기에 이른다.”<sup>44-1)</sup>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열거한 위의 사항들은 바로 이 지도자가 감행한 보스니아의 교육, 언어, 사회에 나타난 복고 항목들이다.

이러한 거대한 복고주의에 대항하는 밀로셰비치의 복고운동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세기 후반 양대 세력의 인구비례는 1:1로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2차대전이 끝난 1961년에는 세르비아의 우위로 역전되며, 유고 해체무렵인 90년대에는 다시 이슬람인구의 큰 신장으로 재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 인구 역전 현상과 이슬람 복고 운동은 이웃 세르비아의 두려움을 야기시키기에 이른다. 세르비아는 1천년 비잔틴의 영화와 대세르비아 제국이 누리던 영광으로의 대항 복고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드리나강의 다리’ 전편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르비아는 이 지역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지도자가 택한 방법은 인종 청소라고 불려지는 다소 기이한 전쟁이었으며, 그 대결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다. 자신의 지도력을 위해 복고 향수를 부채질한 적이 없는지를 묻게 되며, 전쟁은 정치의 도구라는 ‘전쟁론’의 한 구절을 음미해 보게된다.<sup>45)</sup>



유러화 출범 축하. “잊지마세요. 화폐의 로마제국 탄생을”. (99. 1. 3. 동아일보)

## 6. 복고주의의 반성과 진로

### 복고주의의 약점

앞서 살펴본 복고주의 예들은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걸여된 것 중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헛수고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으나, 한가

지 점에서만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복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 복고의 정당성을 논위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빼앗긴 자기를 다시 찾으려 하거나, 훼손된 것을 과거의 온전한 상태로 복귀시키려는 경우나, 창조력의 한계점에서 솔직히 돌이켜 과거를 살피려는 데는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나 창조력이 왕성한 경우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라면, 잃어버린 건강, 실추된 명예,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경우가 더 온전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점에서 복고주의는 형식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열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마저 외면 당하는 예를 보게된다. 세계 도처에서 잃고 있는 주권 회복운동이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반향이 크지 않음과 무관하지 않다. 복고를 탓하기에 앞서서 발미를 제공한 원인들을 살펴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매번 잘 되어 나갈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열등하며 약점을 지닌 복고주의이지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그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복고행위 즉 과거의 체제를 회복하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생겨난다. 여러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게되나, 그것은 아마 복고주의가 지니고 있는 함정일 것이다.

### 복고주의와 자기애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자기애의 깊이 여부다. 지나침은 언제나 문제로 나타난다. 자기자신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나 자기비하를 서슴치 않거나, 굴욕에 빠져 있을 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 격려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위대한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반면 아무리 격려 차원에서지만 자기 칭찬이 요란스레 오래 지속되면 유연성과 자발성이 손상되며, 특별히 이웃을 잃는다. 우리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만 못하다’는 주장인데, 오래도록 들어 줄 이웃이 없을 것이다. 내국민을 아우르기 위한 보스니아 내 이슬람 회복운동이 곧바로 이웃 세르비아를 자극하여 전쟁으로 비화됨과 같은 것이다. 자기민족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나치의 선전이 정작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반감이 더해져 많은 나라의 저항을 더욱 세차게 받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44-1) Samuel Huntington: 알책, p. 368  
45)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상성) p. 414

## 복고주의와 창의력

다음으로는 복고주의에 있어서의 창의력을 생각하게 된다. 외형상 복고주의는 창의력을 극대화 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다른 하나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뭔가를 가져 온다는 생각에 연유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창작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에 있어서 마저 인습(因習)을 기초로 한다는 이놀드 하우저의 주장은 그 약점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보게 한다. 복고주의에 있어서의 창의력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에 관한 것이며, 비복고적인 것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환상적 고전주의적 복고주의를 반성의 대상으로 주목하게 된다. 환상적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대하여 지나치게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며, 과거를 고전으로 삼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의 복고주의를 말한다. 이 경우는 토인비가 말하는 복고주의, Archaism(의고주의)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르네상스적 복고와 비교할 때 창의성, 적응성, 융통성의 문제로 드러난다.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정치제도, 사상예술, 정신, 언어 등에 걸쳐 역사상 26개의 Archaism의 실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긴다.<sup>46)</sup>

“지금까지의 Archaism은 거의 다 실패하였거나 헛수고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 과거와 현재의 서로 대립되는 요구가 양립하지 않는 점이 Archaism의 약점이다. 현재를 생각지 않고 과거를 부흥하려면(To restore the Past) 계속 전진하여 멈출줄 모르는 삶의 힘이 마침내 그가 지은 조잡한 건축물을 산산히 부숴버릴 것이다. 과거를 부활하려는 생각을 현재를 원활히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 Archaism은 사기(詐欺)다.”

이 글은 과거의 이상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라는 요지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중요성과 그를 위한 창조의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르네상스적 복고는 부담을 던다. 성질상 과거보다는 현재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며, 그가 가져 오고자 하는 것이 발육부진, 빈사 상태의 것이어서 앞서 보다 많은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환상적 고전주의적 복고주의자(Archaist)들 마저도 변용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들의 속내를 알지 않고서는 판별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흡사 일본의 신도가 교묘한 변모를 보인 것과 같이, 후세의 역사가가 복고주의니, 르네상스니 하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세월의 흐름을 지켜 보게 된다. 환상적 고전적 복고주의자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들어가 거기에서 살아가고픈 사람이며, 르네상스적 복고주의자는 과거로 들어가 고쳐서 쓸만한 것을 골라 다시 현세로 돌

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재는 타임머신이 없는 탓으로 이 Archaist마저 과거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데, 후자와 다르다면 그것을 거의 완벽한 최고의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의력, 현실 적응력에 있어서의 열세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 복고와 권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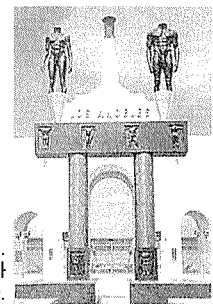
여러 복고주의 예를 살펴보는 가운데 공통 사항중의 하나는 행위자의 대부분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도자의 권위는 자신의 실력에 기인할 것이나, 외형적 권위는 고래로부터의 형식에 의존하는 바 크다.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다.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치자를 힘에 의한 외형적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힘을 바탕으로 한 외형적 권위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복고로 연결지워짐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심을 상징화(Centralization) 하거나, 과장되어 보이게 하거나, 신화적 요소를 도입해 보려는 것 자체가 그로부터 생기는 권위를 수단으로 삼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복고주의자는 권위주의자로, 권위주의자는 독재자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를 희롱하는 듯한 자신감, 포스트 모던적 경향을 눈여겨 보게 된다.

## 부연

이상 복고주의가 지닌 약점과 딜레마, 그가 반성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과거를 부흥시키려는 추세는 좀처럼 사그러들 낚새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며, 창의력의 한계와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더라는 퇴행적(退行的) 사고의 만연을 걱정거리로 남겨 놓는다.

무슨 뚜렷한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필자가 느껴온 그간의 감정을 이야기 한다면, 이해와 양보의 정신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현실의 합리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아쉽다는 점이다.



로버트 그레이엄.  
LA 올림픽 아치. 과거에 대한 접근 태도가  
달라 보인다.

46) A.J. Toynbee : 앞책 vol. 6, p.96